

도농교류사업을 꿈꾸는 새로운 목회

박재현 (목사, 여름지기영농조합법인 대표)

들어가는 말

요즘 농촌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를 주도했던 미국의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 인하여 전 세계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촌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도 환율의 폭등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었던 수출기업은 오히려 환율폭등이 도움이 되고 그간의 경제체제를 통해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농촌은 환율폭등으로 인한 경제변화로 이중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환율폭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원재료 값 상승이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아직도 농촌에 희망이 있고 농촌이야말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농촌에서 시작했고, 저의 작은 성공을 통하여 농민들이 희망을 바라보게 되고, 농촌에 목회하시는 사역자들께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히 저의 작은 힘과 노력에 크게 보상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실제일교회로 인도함을 받음

저는 일반대학에서 경제를 전공하고 여의도 증권가에서 3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농촌에 개척교회를 하였습니다. 그 때는 열정 하나로 일반적인 목회를 하였습니다. 교회도 부흥되고 안정을 찾아 갈 때 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목회를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예장농목'과의 만남을 통해서였습니다. 신학교에서 '농어촌 선교연구회'를 재건하고 선배님들의 목회 현장을 열심히 방문하고 그 분들의 삶과 목회현장에서 다양한 목회를 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제가 해온 목회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건강이 좋은 앓은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목회를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장(家長)으로써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는 목회 대신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로 민생고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도시에 서 부목사로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다시 농촌으로 강권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이 임실제일교회입니다. 제가 강남에서 부목으로 열심히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었고 열심히 하다 보니 나름대로 좋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팀 목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유명한 목사님께서 저의 사역의 작은 성과를 보시고 팀 목회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강남에서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팀 목회를 제안하신 분당에 있는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사임하고 분당으로 가기 일주일 전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팀 목회를 제안했던 목사님께서 교회사정으로 저를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을 방황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공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제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전북 임실에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태생이 경상남도 산청입니다. 전라도에 간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담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실제일교회 전임 목사님이 예장농목을 이끄셨던 유명한 심상봉 목사님이셨고, 19년을 담임하시고 정년을 1년 남기고 사임하신 역사적인 교회였습니다. 심 목사님과 3시간 면담을 하고 임실로 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성도들도 제가 오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셨기에 제가 그곳에서 3년간의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실제일교회 사역활동

1) 공부방사역

임실제일교회를 처음 담임하고 시작한 사역은 공부방 사역이었습니다. 전임 심상봉 목사님은 오랫동안 한문 서당을 운영해 오셨고, 매년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신앙과 인격으로 가르쳐 오셨습니다. 저는 2005년 1월초에 부임하자마자 바로 공부방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미 학원에서 가르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방학이었고 몇 달간의 목회자가 공백이었던 교회에서는 환영하였습니다.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도 미처 해보지 못하고 교회의 상황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서둘러 시작한 첫 사역은 더듬더듬 시작하는 듯 하면서도 금세 자리를 잡아 칭찬의 소리를 자아내는 효자 사역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날로 늘었고 호주에 사는 아내의 사촌동생까지 와서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영어 공부방의 면모를 더욱 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이면에는 감당할 수 있는 조직도 갖추어야 하는 묘미가 곁들여 저야 하는데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골교

회의 상황으로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전문적인 공부방 사역을 하겠다고 해서 교회 2층을 빌려서 공부방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2) 지역사회 섬김 사역

우리교회는 농민들의 실제적인 권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농민운동을 교회에서 주도해서 임실의 고추 데모를 기획하고 주도했던 경험이 있고, 가난한 농민들을 돕기 위한 농민들의 썸지돈을 모아 신탁을 만들어 지금까지 임실의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동체 운동은 성공을 못했지만 새로운 시도였으며 전임 심상봉 목사님께서서는 친히 유기농 농사를 지으시면서 직접 노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저는 지역을 위한 사역을 준비하고 기획한다는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교회 안에 특이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개발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큰 안목으로 지역을 살리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실은 군을 이끌어갈 지역의 수장인 군수 복이 없습니다. 4번의 민선 군수들이 모두 구속되는 전국 유일한 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역사회개발부 수장을 맡고 있는 강완묵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농민운동을 열심히 했고 교회도 성실히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이 분이 임실군의 새로운 수장이 되면 임실군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교회들과 연대하여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연로하신 분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실천했습니다.

3)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저소득자들 교육 및 훈련

저는 처음에 자활후견기관이 임실제일교회 부속기관인지 모르고 부임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활후견기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저소득층을 정부 보조금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경제적인 자립을 돕고

자 만들어진 좋은 제도입니다. 임실제일교회도 임실군으로부터 이 기관을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탁을 받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탁을 받아 교회가 이 기관을 통하여 지역을 섬기고 지역선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임목사님의 자제분이 자활후견기관의 관장을 맡게 되었고, 교회와는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도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아무 문제없이 3년간 교회와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이 기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이 기관을 통하여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과 사역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을 조직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자활후견기관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성도들을 모시고 선견지 탐방도 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정말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의 이런 노력은 교회 안에 새로운 골을 만들었고 그 골은 점점 더 깊어 갔습니다.

제가 임실제일교회를 새로운 모델로 구상하고 10년을 사역할 계획을 가지고 왔지만 가장 큰 장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전임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과 저의 사역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일을 개혁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 중인 임실치즈체험 학습활동이 자활후견기관과 연계되었다면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주목받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낼 수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제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내 최초로 실시된 임실치즈 체험학습입니다.

4) 임실치즈 체험학습

임실치즈 체험학습은 제가 임실에 부임하여 남긴 가장 자랑스러운

사역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지역의 많은 영향을 끼쳤고 전국에서 주목받는 체험학습장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는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임실이 치즈가 유명한 것은 그곳에 낙농이 발달되어서가 아닙니다. 임실은 정말 보여줄 만한 목장하나 없는 곳입니다. 낙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군 전체에 300농가 안팎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실이 치즈로 알려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만들고 역사하신 체험학습이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실은 전국에서 낙후된 군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작고 가난한 군입니다. 임실이 내 세울 만한 농산물은 고추였는데 고추는 이미 순창군에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추장하면 순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임실에서도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했습니다. 요즘 경제용어 중에 “Story Marketing”이 있습니다. 임실은 치즈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다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벨기에 신부님이신 지정환(개명)신부님께서 한국에서 최초로 치즈를 만들었고 그 공장은 임실농협에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나 임실군에 의식 있는 사람들은 치즈를 통하여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산치즈는 외국치즈와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치즈는 또한 매출신장의 측면으로도 사업성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임실치즈는 정부로부터 50% 보조금을 받고 운영합니다. 보조금이 없이는 외국치즈와 가격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치즈를 어떻게 지역경제와 연결할 것인가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치즈체험을 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요구르트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부임하자 사업이 순탄치가 않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즈체험학습’을 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중심이 되어 우리교회 성도이자 요구르트 공장 직원인 한분과 2005년

5월에 치즈체험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라고 말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무모한 도전입니다. 전공자도 아니고 낙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내가 하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정말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다른 마을처럼 체험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판넬로 지어진 버려진 공장을 수리해서 체험학습장을 수리했습니다. 정말 처음에 아무도 될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간 아내와 제가 기도하면서 체험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농촌에 있는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만을 생각했습니다. 저와 아내 두 사람이 이 체험을 진행하고 기획하고 완성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관심이 없었고 마을에서도 이미 자기들이 해본 것이라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들면 체험장에 상이 필요한데 상을 살 돈이 없어서 주중에는 교회상을 가져와서 사용한 열악했던 분위기가 생각납니다. 6개월 만에 체험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치즈 만들기 체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 치즈의 공정은 7-8시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을 1시간 30분으로 단축하여 우유에서 치즈가 되는 과정을 체험하고, 시식하고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와 아내가 기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국내 최초로 만든 '임실치즈체험학습' 프로그램이 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자 많은 사람들이 체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06년도 한해에만 유료로 1만 명의 체험객이 오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성공 뒤에 무서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교인들과 마을에서 체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니 이제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일에 손을 떼고 교회 일에만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찬반의 골이 생기게 되었

습니다. 일부 교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전임 목회자가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 찬성했던 교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저는 정말 괴로웠지만 그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다는 것이 마음으로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인 2007년도 5월에 새로운 체험에 도전하였습니다. 치즈체험과 피자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체험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교회 빛이 많은 안수집사님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돈이 없었기에 5년간 버려진 학교를 보수하여 그곳에서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도 한 해 동안 체험객들이 2만 명이나 다녀갔습니다. 그 성공을 계기로 2008년도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게 되었고, 자금투자자와 토지제공자를 만나게 되었으며 체험장을 두 군데나 새롭게 짓게 되었고, 펜션도 같이 지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즈체험학습 중인 아이들

작년 한 해 동안 체험객이 4만 명이 다녀갔고 현재는 정규직원만 5명이 되고 지역의 농민들은 한 달 평균 2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실군에 치즈체험장이 5군데나 생겼습니다. 우리 체험장이 임실에서 제일 많은 체험객이 방문하는 명품 체험장이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에 크게 보상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작년 한 해 동안 임실에 치즈체험만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임실제일교회 사임

체험사업이 점점 번창하자 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일을 교회와 연대해서 임실제일교회 중심이 되어 체험사업을 추진하고 이것을 지역선교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교회에 제안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찬성을 했지만 교회 중심이 되는 젊은 성도들이 제가 하는 일을 반대했습니다. 그 분들은 제가 처음 치즈체험장을 만든 느티마을 주민들이었고 주민들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활후견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지역경제 사업에 뛰어들어서 건전한 농촌의 문화와 일자리 창출을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묻기로 했습니다. 6개월간 기도하면서 정말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그만두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응답이 왔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저를 이곳 임실에 보내셨다고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더 크게 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주일 대예배 설교 시간에 사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충격을 받았고 저를 붙잡아야 된다고 장로님들에게 설득을 요청했지만 저는 이미 결단했고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저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락을

한 가지 했습니다. 후임 목회자를 정해 주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은 제가 정할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남원노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남원노회에서 추천해주신 목회자를 새 교역자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했습니다. 새로운 목회자가 올 때까지 교회를 맡아주고 이·취임식을 동시에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결정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교회가 흔치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모든 사역을 후임목회자에게 넘겨 드리고 임실제일교회 사역 3년을 마감하였습니다.

진정한 도·농교류 사업을 통한 새로운 목회시작

임실제일교회를 사임하고 1년간 사업에만 전념했습니다. 주변의 우려도 있었고 저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러다가 목회는 안하고 사업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목회를 계획했고 때가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 사역을 맡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체험학습 사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의 새로운 사역은 도농교류 프로젝트 사역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정말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농촌에 생산자들을 교육해서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게 하고 도시에 소비자들을 교육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교육하고 물론 먹거리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교류, 문화적인 교류, 교육적인 교류, 더 나아가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를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은 아직 성과나 결과가 없기에 뭐라고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제가 처음 치즈체험을 만들 때에 그 열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를 받아서 머지않아 좋은 결과와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목회를 그만 둔 것이 아니라 잠시 쉬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만간에 시작할 새로운 교회모형을 꿈꾸고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독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農

정기구독을 신청해 주십시오

계간 「**농촌과목회**」는 일반기독교서점에서는 구입할 수 없고 정기구독을 신청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신청은 다음의 곳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krhkh429@chol.com, krhkh@hanmail.net

전 화: 033-343-7791, 019-416-8098

1부 값은 6,000원이며 1년 정기구독료는 24,000원입니다.

〈입금계좌번호〉

국민은행 303-21-1110-439 한경호

농 협 209-12-300658 한경호

우 체 국 200212-02-244339 한경호